

“새정부, 지역 성장·자립 지원 절실”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책토론회

“수도권 집중 공간구조 시정
동서축 보강 통합 SOC 구축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정비
지원체계 버튼업 방식으로”

송 지사, 국회에결위원장에
도정 쟁점사업에 대한
예결위 차원 협조 건의



송하진 도지사는 1일 서울 국회를 찾아 지난달 29일 선출된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하고 도정 쟁점사업에 대한 국회에결위원 협조를 건의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협의체”가 1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협의체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 대표 국회의원(공동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황영철 강원 총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과 추진과제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지방분권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촉구하는 시기적절한 토론회였다는 평가다.

토론회에는 3명의 주제 발표가 있는 후 도시지역계획연구원 한영주 원장을 좌장으로 지역발전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 7명의 지정토론자들과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먼저, 산업연구원 장재홍 선임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주제발표에서 “향후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으로 수도권 일극 집중 공간구조의 시정을 위해 ‘동서축 보강을 통한 통합 SOC 구축’과 ‘특화된 4차 산업혁명의 거점 조성’을 위한 ‘국토 신발전 축 및 거점형성’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본부장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차등적 재정지원을 통한 ‘저발전지역’ 지원 강화, 혁신도시 1단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이전기관과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2005년 7월 1일 이후 설립된 공공기관 추가이전, 관련 대기업 본사의 이전 등 ‘혁신도시 시종’ 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로 나선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 법정분율 인상, 매칭비의 인화, 유사중복사업의 통합, 지자체의 사업선택 자율성 확대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재정비,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의 발굴과 창의적 추진을 위한 권한 부여를 위해 재정지원체계를 버튼업 방식으로 전환’을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이번 정

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개최되는 시도지사, 지역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기회를 통해 새 정부에 건의하고, 지역균형발전 협의체지문단의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 정책평가와 새정부의 정책방향 제안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토론회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어 모든 지역이 제 몫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백재현 국회예결위원장을 면담하고 국가예산 중 기재부에서 지방비 부담요구 등 쟁점사업(국립 지역권 산림치유원 조성,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등), 새만금 사업 재정지원, 예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예타 통과 협조와 착수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 국회에결위원 차원에서 협조를 건의했다. /김진성 기자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절차 이행 완료

전북도, 무주 태권도원 현안 해결 직접 나서
행정부 중앙재정 투자심사 승인 이끌어
2019년까지 준공시 이벤트 등 시너지 효과 기대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이 2017년 제2차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승인됐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명예의 전당’ 건립은 무주 설천면 세계 태권도 본원으로서 위상과 권위를 갖게 하는 태권도원의 상징 사업이다. 총사업비 176억원(국비 70, 도비 15, 군비15, 기부금 76)으로 건립된다.

태권도의 철학과 정신세계를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공간인 ‘태권전’ (363㎡)은 한국 전통의 마당(체합공간)과 대청마루(의식공간)으로 구성한다.

세계 최고 수준 고단자들의 수련 및 소통공간인 ‘명인관’ (1,092㎡)은 고단자의 명상 수련실, 커뮤니티 공간, 연회장, 야외 수련장으로 조성하게 된다. 동 사업이 무주 태권도원을 대표하

고 상징성을 지닌 핵심 시설임에도 그동안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다.

이유는 당초 전액 기부금으로 추진하기로 계획했으나, 장기간 경기침체로 모금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으로 지난 2014년 태권도원을 대표하는 상징지구인 ‘태권도 명예의 전당(태권전, 명인관)’이 미건립된 상태에서 태권도원을 개원했다.

도는 사업비를 기부금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 무주 태권도원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국비 지원 논리와 당위성을 마련, 송지사가 직접 나서 문체부를 설득하고 국회의 결까지 지난 12월 국민체육기금 70억 원을 확보했다. /김진성 기자

올해는 예산 반영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위해 도의 역량을 모아 지속적인 활동을 해 온 결과 2차 중앙심사에 최종 승인됐다.

투자심사 과정에서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행자부를 수시로 찾아가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앙의 인맥을 활용 투자심사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심사 분과위원회 심의, 전체위원회 심의 등 각 단계별로 도 예산과를 중심으로 체계적 정책과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이 유기적으로 협력·대응, 결과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투자심사 이행으로 예산 반영이 가능함에 따라 1회추경에 도비와 군비를 반영, 2019년까지 태권전과 명인관이 준공되면 태권도 본연의 가치와 철학을 보존·발전할 수 있는 상징공간이 마련됨으로써 태권도 이벤트, 행사 확대, 방문객 증가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김진성 기자

서훈 국정원장, 국내정보 담당관제 완전 폐지 지시

서훈 국정원장이 1일 본격적인 임기 시작과 함께 논란이 돼왔던 국정원 내부의 국내정보 담당관제도의 폐지를 지시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원장이 취임식 직후 국내정보 담당관제도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동안 각 정부부처에 정

보담당관(IO·Information Officer)을 파견해 왔다.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도 문체부 파견 국정원 정보담당관이 직접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내정치 개입 통로로 활용돼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곤 했다.

국정원은 “서원장의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단절과 개혁 실현을 위한 획

기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성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서원장은 이와 함께 국정원의 중장기 발전과 정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미련을 위해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발전위에는 국정원 내부 직원 뿐 아니라 전직 직원,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해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

社告

제4회 전국 품바왕 명인전

일시: 2017년 6월 10일(토) 오후 7시부터
장소: 전주 풍남문 광장

품바는 우리 전통사회에서 서민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풍자요 해학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전통예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 이에 본사는 올해 네번째 품바왕 명인전을 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최: 전북다문화진흥원
- ▲주관: 전북다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사
- ▲후원: 전주시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전주매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안전·보건 공생협력 ‘우수’

한국지엠주식회사 군산공장이 1일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공생협력프로그램 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 환경을 개선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평가는 전국 99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 한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사업장 3곳이 선정됐다. /군산=장현 기자

*토·일요일 신문입니다.

매일 INDEX

2면 - 전북 보훈요양원 건립 청신호

3면 - 가짜뉴스 방지법 대표 발의

14면 - 전주 유림중 학생들의 미담

‘청소년이아름다워야 세상이아름당습니다’

제7회 전국형소년 마술경연대회

일시: 2017년 6월 10일(토) 오후 4시
장소: 전주 풍남문 광장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전주시연맹
공동주관: 전주매일신문사,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후원: 전주시
대화문의: 063) 288-9700